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문제 작성 양식

◆ 대학명: 한국항공대학교
◆ 모집시기: 수시1차
◆ 전형명칭: 일반학생전형
◆ 모집계열: 인문사회계열
◆ 출제유형: 일반논술형 중 자료제시 논술형, 작문형
◆ 개요
- 시험시간: 120분
- 출제문항수: 3문항
- 답안지 양식, 작성 분량: 무선(지정된 칸 내에서 자유기술)
- 지정된 필기구 : 흑색필기구(볼펜만 사용 가능)
- 수험생 유의사항:
  1. 논술고사 전 별도 예비소집일은 없으며 수험생은 고사 시작 30분 전까지 본교의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일시에 논술고사 대기 장소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사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논술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한다.
  3. 논술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이 없는 수험생은 논술고사 응시를 제한받을 수 있으며,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는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입시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한다.
  4. 전자 및 통신기기류 등을 지참하고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5.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실 조치하며, 불합격 처리한다.
  6. 고사장에 입실 후 책상에 부착된 표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논술고사 답안은 흑색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수정도 같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답안을 수정할 경우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은 줄 위에 작성한다.
  8.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답안지에 수험생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하면 그 답안지는 무효 처리됨.
  9. 논술고사 답안지는 원칙적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으며, 문제지와 답안지는 가지고 나갈 수 없다.

◆ 출제방향(취지) 및 교과서 관련여부 및 근거:

[문제 1]

제시문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와 그 의미들 사이에 나타내는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서로 관계 지어,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본다. 고등학교 교과서 <글과 논리>, <정보와 해석>, <설득과 비판> 등 그의 의해와 생각의 표현을 위주로 출제하였다.

[문제 2]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도덕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서로 대조적인 두 지문을 통해 우리에게 바람직한 가치는 어떤 것인지 조망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가치를 논리적으로 재조명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출제하였다.

교과서 관련 근거:

- <사회문화> 개인과 사회를 보는 관점 > 개인과 사회를 보는 바람직한 관점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
  공동체 의식
  사회적 관계와 사회구조
- <도덕> 사회제도와 정의> 불공정한 사회제도와 정의로운 사회

[문제 3]

공동체주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을 사회문제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들은 먼저 제시문에서의 기본 관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도표를 해석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윤리와 사상> 사회사상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사회> 국제거래와 세계화 > 세계화와 국제경제문제
- <경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평가기준:

[문제 1]

1) 제시문 나), 다), 라)에서 나타나는 커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2) 제시문 가)에서 나타나는 차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3) 나), 다), 라)에서 나타나는 커피의 의미와 관계 지어 가)에 나타나는 차의 의미를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4) 문장의 정확성과 글의 전체 구성 등도 점수에 포함한다.

[문제 2]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분석 및 비교 (15점) :
  - 두 지문을 하나의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8점)
    (내용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지문을 대조,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함)
  - 인간과 사회라는 두 개의 축 안에서 내용을 분석 대조하여야함(7점).
    (그 외의 관점에서 두 지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인간본연의 가치와 책임에 대한 부분 (15점) :
  - 문제에서 언급한 인간본연의 가치는 제시문에서 “자유”에 해당되는 관념임.
  - 자유와 책임이라는 개념에 대해 제시문 가], 나]와의 구체적 관계 안에서 논술하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함(8점)
  -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고 했으므로 자유나 공동체적 책임 양자 중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주장도 가능하고, 양자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함. 주장의 내용이나 건전성이 아니라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의 논리성과 설득력을 평가할 것(7점).

[문제 3]

- <도표 1>, <도표 2>, <도표 3>의 분석 (20점) :
  - 예시 답안의 첫 번째 - 세 번째 문단 참조
    - 공동체의 기본 특징 도출 : 가족, 이웃, 사랑(균형, 연대)
    - 구체적인 수치 인용도 중요함
  - 고려사항
    - 공동체주의 관점 자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그것은 2번 문제에 대한 답임
- <도표 4>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20점) :
  - 예시 답안의 네 번째 - 여덟 번째 문단 참조
  - 가족, 이웃, 사랑(균형, 연대) 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세 가지 이상의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만점
  - 분석 결과 혹은 문제점을 단순히 반복하면 점수를 받지 못함

◆ 출제문제:

[문제 1]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삼국시대 우리나라 차 문화의 흥성이 잘 나타나 있다. 고려 문집에 실린 수백 수의 차시(茶詩)는 당시 융성했던 차 문화의 저변을 보여준다. 조선조에 이르러 차 문화는 급격한 쇠락을 맞았다. 하지만 잊혀졌던 차 문화는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새롭게 되살아난다.

조선 후기 차 문화의 출발점은 이운해의 『부풍향차보』와 이덕리의 『동다기』에서 찾는다. 특히 『동다기』는 차 무역을 강조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덕리는 차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차 무역을 통해 국부를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가 차를 전매함으로써 국방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모에 관련된 죄인이었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는 거의 없었다.

조선 후기 차 문화의 중흥은 추사와 초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초의 스님의 차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830년의 일이다. 초의는 상경하여 스승 완호의 사리탑 기문을 받고 그에 대한 예물로 차를 준비했다. 우연히 벗을 통해 그의 차를 맛보게 된 박영보가 시를 지어 사귐을 청하고, 초의가 이에 화답함으로써 초의 차는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중국 연행 길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온 형편없는 품질의 차만 마시던 권문세족(權門勢族)들에게 초의 차는 충격이었다.

초의 차가 유명해진 데는 누구보다 추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추사는 24세 때 연행에 참여하여 용단승설차를 맛보았다. 그는 이 차의 맛을 평생 잊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런 차를 쉽게 구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초의 차를 맛본 추사는 이 차에 깊이 매료된다. 추사는 초의 차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다. 그는 차를 얻기 위해 초의에게 많은 그림과 글씨를 주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곳곳에 차 얘기가 등장한다. 호들갑스럽기까지 한 추사의 편지는 그의 차 애호가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당대 예단(藝壇)에서 추사가 차지한 비중 때문에 초의 차의 명성도 더불어 대단해졌다. 한번 일어난 차에 대한 열기는 들불처럼 번져갔다. 경향(京鄕) 각지에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이 초의 차에 대한 예찬이 이어졌다. 이런 요청에 응하려면 아무리 부지런히 만들어도 부족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추사와 초의가 차례로 세상을 뜨자, 차 문화의 열기 역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싸늘히 식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다도가 들어와서야 차는 다시 우리의 관심권에 들어오게 된다.

나) 6세기경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커피는 오랫동안 이슬람 세계에서만 즐기는 음료였다. 12-13세기 커피는 십자군과 더불어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기독교 문화권의 유럽인들은 처음 커피를 대했을 때, 그것을 사탄의 음료라 부르며 배척했다. 그 맛과 향이 매혹적일 뿐 아니라, 그것을 마셨을 때 기분이 너무 상쾌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피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술가들이 모였다. 르네상스 예술가들에게 커피는 없어서는 안 될 음료였다. 기독교 세계에서 커피는 금기 아닌 금기였다. 그리하여 1605년 교회 지도자들은 교황에게 커피 풍습을 금지해 달라고 청원하기에 이른다.

당시 교황이던 클레멘트 8세는 이 청원을 받아들였다. 교황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커피를 한번 시음해 보기로 하였다. 시음 결과, 교황은 커피 맛에 매료되어 교회의 지도자들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다. "이교도의 음료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감칠맛 나는구나! 이 매혹적인 음료를 이교도들만 마시게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기에 세례를 베풀어 기독교 음료로 만드는 게 어떻겠는가!" 이리하여 커피는 유럽 전역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바흐, 베토벤, 발자크, 고흐 등 많은 유럽 예술가에게 더욱 사랑받게 된다.

바흐는 커피 칸타타를 작곡하여 커피의 맛과 향을 찬미했다. 베토벤은 아침마다 60개의 원두 알을 갈아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며, "나는 아침식사에 한 번도 나의 친구를 빠뜨린 적이 없다. 나의 친구는 나에게 60가지 영감을 준다"고 하였다. 발자크는 하루에 5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서 글쓰기에 몰두하여 20여 년 동안 100권에 가까운 소설을 써냈다. 그는 "커피가 위장에 들어가자 온몸이 반응한다. '아이디어'는 경기병처럼 전진하고, '논리'는 포병처럼 포를 쏘며, '비평'은 저격수처럼 사격한다. '비유'가 쏟아져 종이는 잉크로 뒤덮인다"고 하였다.

다) 1896년 아관파천 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커피를 맛보았다 한다. 고종은 러시아 웨벨 공사의 처형인 독일계 러시아인 손탁(Antoinette Sontag)의 권유로 커피를 접하게 되었고, 당시 세자였던 순종과 함께 커피에 맛을 들였다. 고종은 덕수궁으로 환궁한 뒤에도 커피 맛을 잊지 못하고 커피를 계속 찾게 되었다. 고종은 덕수궁에 정관헌이라는 서양식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양음식을 즐겨 들었고, 외국 공사들과 연회를 갖기도 하였다.

1902년 고종은 외국인을 접대하기 위하여 서양식 건물인 손탁호텔을 지어 손탁에게 무상으로 하사하였다. 손탁호텔에서 서울의 첫 번째 호텔식 다방이 문을 열었다. 이후 궁중에서는 관리들에게 선물을 내릴 때에 선물 목록에 커피도 포함시켰다. 커피는 단지 왕실의 기호품으로만 그치지 않고, 중앙의 관료, 서울의 양반, 지방의 양반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서양의 개화바람을 흡입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당시 커피는 서양문물의 상징이었다.

커피의 확산은 1920년대와 1930년대를 풍미하던 모더니즘의 바람을 타고 이루어졌다. 커피 한 잔에 10전의 고가였기에 돈 내고 사탕물을 마시는 세상이 왔다고 탄식하는 이도 있었지만, 당시 유행의 첨단을 걷던 '모던 보이', '모던 걸'에게 커피는 사탕물 이상이었다. 이들은 주로 무위도식하는 상류층 자녀들이었다. '모던 보이'는 비싼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다녔으며, '모던 걸'은 단발머리를 하고 작은 양산을 들고 다녔다. 이들은 영어나 일본어를 대화에 곧잘 섞어 쓰면서 시대의 소비와 유행을 이끌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들은 전통세대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스스로 서구적 근대인이 되었다고 믿었을 것이다.

라) 히말라야가 품고 있는 말레 마을은 하늘이 내려준 천연 커피 재배지다. 해발 2,000미터에 자리한 말레 마을, 본래 고지대일수록 커피 열매는 단단해지고 밀도도 높아진다. 아침마다 마을을 덮는 안개 덕에 습도와 온도는 적절히 유지된다. 말레 마을은 이미 맛있는 커피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커피 마을을 카메라에 담기로 하였다.

우리는 처음 말레 마을에서 커피나무를 보았을 때, 유독 벌레 먹은 잎이 많은 것을 의아해했다. 혹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杞憂)였다. 화학 농약은 해충을 없애지만 동시에 이로운 생명체까지 없애고 땅을 황폐화한다. 이쏘리는 편하고 빠른 방법 대신 느리지만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오직 천연 재료로 만든 비료만 쓰는 말레 마을의 커피나무는 벌레 먹은 잎이 많았다. 이쏘리는 항상 새로운 유기농법 개발에 몰두했다.

수확철이 다가왔다. 올해 이쏘리 가족이 수확한 커피는 한 바구니 분량(약 1kg)이 전부였다. 산사태에서 살아남은 한 그루의 커피나무와 그의 집 주변에 심었던 커피나무에서만 수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당연히 속상해 하고 슬퍼할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쏘리는 우리에게 뜻밖의 말을 하였다.

"너무……행복합니다."

그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물론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몇 백 그루씩 재배하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이쏘리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농부였다. 하지만 이쏘리를 말레 마을의 최고 커피왕으로 꼽는 이유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커피에 대한 그의 열정 때문이었다. 당장 그에게 몇 백 그루의 커피나무나 많은 양의 커피 수확도 없지만, 커피에 대한 지식과 노력만 본다면 그는 이미 최고의 커피 자산가였다.

[문제 1] 제시문 나), 다), 라)에서 나타나는 커피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에 나타나는 차의 의미에 대해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2]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중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의 전반부나 후반부 어느 쪽도 자유사회의 자유인이라는 이상에 걸맞은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말은 국가가 보호자이고 시민이 피보호자임을 은연중에 전제하는 가부장적 표현으로서, 이는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자유인의 신념과 배치된다.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은 유기체적 관점이며, 정부를 주인 또는 신(神)으로 보고 시민을 종복이나 숭배자로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유인에게 국가란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합체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거나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인은 공통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하고, 공유하는 전통에 애착을 갖는다. 그러나 자유인은 정부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길 뿐,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주는 시혜자라고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봉사해야 할 주인이나 신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인은 시민들 각자가 헌신하는 목표들과 일치하는 경우를 빼고는 어떤 국가적 목표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인은 시민들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들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적 목적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인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저마다 목표와 목적을 이루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나와 내 동료 시민들이 정부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나) 레이건의 주장 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커다란 공조를 이끌어낸 것은 공동체중심 보주수의자들의 주장이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에 대해 레이건이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점 가운데 가장 주요한 부분은 공동체의 가치, 즉 가족과 이웃, 종교, 애국심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지역공동체의 오래된 원칙들을 국가적 수준으로 확장"시켜야 하며 미국인들이 서로를 국가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가정을 국가로, 가족을 국민에 비유하는 표현이 등장했다. '위대한 사회'를 주장한 린든 존슨은 "미국은 한 가족이며, 우리 국민들은 애정과 신뢰라는 공통적인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카터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월터 몬데일 또한 국가를 가족에 비유한 바 있다. 몬데일은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가족, 사랑이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인 하나의 공동체가 되자"고 주장했다. 뉴딜에서부터 위대한 사회에 이르기까지 권리와 자격에 대한 개인주의적 가치체계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힘을 제공해주었지만 1970년대가 되자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을 잃고 말았다. 공동체적 감각을 상실한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번지는 불만의 기운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시민들이 예전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면서도 권한은 박탈되었다고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과 이웃에서부터 도시와 마을, 종교와 민족, 문화적 전통으로 구분되는 여러 다양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쇠퇴는 시대적인 불안과 우려를 가져왔다. 민주주의는 공공의식 함양을 다양한 공동체에 의존해왔다. 자치에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는 공동적 삶에 대한 참여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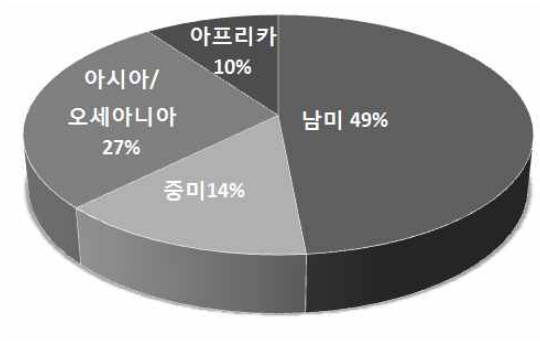
[문제 2] "인간의 사회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비교하고, 이 제시문을 참고하여 "인간 본연의 가치와 책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40점)

※ 다음 도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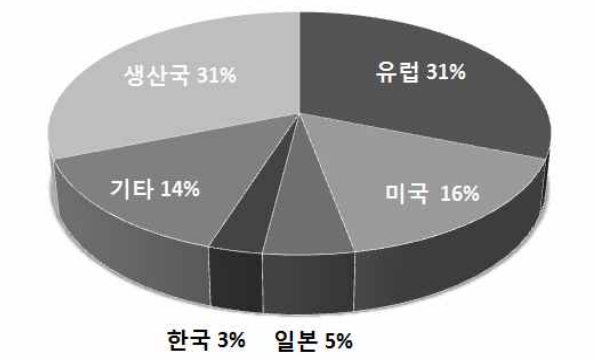
<도표 1> 커피의 주요 생산국 및 소비국 분포 (2010년 기준)

주요 생산국(대륙)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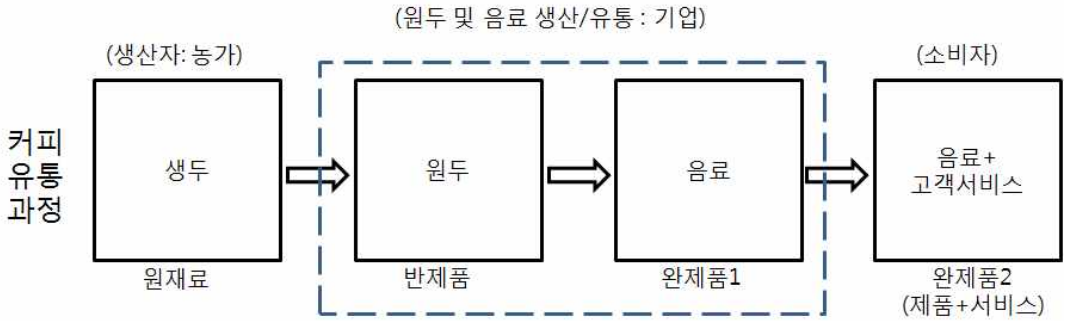
남미: 브라질, 콜럼비아, 페루 등
중미: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우간다, 코티디브아르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파푸아뉴기니 등

주요 소비국 분포



유럽: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영국 등

<도표 2> 커피*의 유통과정 및 유통단계별 수익구조



유통 단계별 수익구조	농가	원두 생산자 및 유통기업	소매업자
	5%	65%	30%

* 커피 관련 용어

- 생두 : 커피 열매에서 과육 등을 분리한 후 추출한 씨를 건조시킨 것
- 원두 : 볶음(roasting)과 혼합(blending) 등 가공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 음료 : 원두의 분쇄와 추출을 통해 만들어진 것

<도표 3> 커피의 연도별 세계 교역 현황

연도	교역액 (억$)	교역량 (만 포대)	kg당 가격 ($)	세계경제성장률 (전년대비, %)
2002	51	8,859	1.05	2.9
2003	56	8,589	1.14	3.6
2004	69	9,107	1.37	4.9
2005	93	8,761	1.97	4.6
2006	108	9,228	2.11	5.2
2007	128	9,657	2.37	5.4
2008	153	9,756	2.74	2.9
2009	133	9,622	2.55	-0.5
2010	167	9,680	3.25	5.0

<도표 4> 커피 공정무역 인증제도 관련 주요 사항

구 분	내 용
제도의 의의	• 커피 생산국의 가난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제도 •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커피를 제값을 주고 사는 방식
인증조건	• 아동 노동 금지 • 제초제 및 살충제 사용 지양 • 실사조사단의 엄격한 실사 후 인증
생두가격	• 농가 최소 가격 보장 (비인증 거래 대비 최소 110% 이상)
공정무역 거래량	• 현재, 전체 생두 커피 무역량의 1% 미만인 상태임

[문제 3] [문제 2]의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도표 1>, <도표 2>, <도표 3>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표 4>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

◆ 출제문제 해설:

[문제 1]

- 출제의도

학생들이 제시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종합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명확히 기술할 수 있는가하는 점을 시험하는 데 출제방향을 맞추었다.

- 제시문 해설

문제1]의 제시문 가)는 차와 관련된 글이며, 나), 다), 라)는 커피와 관련된 글이다. 차와 커피는 모두 기호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나), 다), 라)에서 나타나는 커피의 의미는 가)에서 나타나는 차의 의미와 관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논제분석(해설)

1) 논제에 따라 우선 나), 다), 라)에 나타나는 커피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겠다. 대략 아래에 제시한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다른 생각도 제시할 수 있으며 그것이 차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나) ① 커피는 일상적인 기호품 이상으로 매력적인 맛과 향을 지녔다.
② 그러한 커피의 매력은 개인이나 사회에 위험 요소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③ 위의 이유로 어떤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데 제약이 되기도 한다.
④ 커피는 예술가들이 즐기는 음료로,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음료이다.

다) ① 커피는 일상적인 기호품 이상으로 매력적인 맛과 향을 지녔다.
② 무엇보다 커피는 서양문물의 상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③ 첨단 유행의 지표가 되는 기호품이다.
④ 선진문화(고급문화)의 커피 소비자와 동일시하며 과시하는 태도를 지닌다.

마) ① 커피는 상품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② 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오직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그것을 재배하는 것은 아니다. (생태학적 윤리의식을 담고 있다.)
③ 커피는 노동의 결과물로서 보람을 주기고 한다.
④ 자연(혹은 신)이 내린 선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2) 제시문 가)에서 나타나는 차의 의미는 다양하다. 추사의 태도는 차가 얼마나 매혹적인 음료인가가 드러난다. 초의 차가 추사의 창작열을 부추겨 많은 예술작품을 남기는 데 일조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차는 선진문화(고급문화)의 상징이어서, 차를 마시며 서울의 상류층들은 추사와 동일시하고 과시하는 태도를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차의 경제적 의미도 드러난다. 그것은 소박한 개인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영이나 국제 무역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차를 만들고자 하는 초의의 차에 대한 열정은 일에 대한 보람이 나타나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커피와 연관지어 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겠다.

[문제 2]

- 출제의도

학생들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여 비교, 평가하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한다. 충돌되는 가치관들을 논리적으로 비교해내고 자신의 견해를 창의적으로 논술해 내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제시문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인 과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의도로 출제되었다.

-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의 일부이다. 제시문 나]는 마이클 샌달의 <왜 도덕인가?>의 일부이다.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대변하는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의 서론의 첫 부분은 자유사회의 자유인은 사회에 실체를 부여하여 복종이나 숭배의 대상으로 보거나 사회에 의존하여 보호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는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구성원들의 집합체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이클 샌달의 <왜 도덕인가?>는 개개인의 가치를 넘어선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주주의에 묻혀버린 도덕적 논의를 공공의 장소로 끌어내고 있는 글이다.

- 논제분석(해설)

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논제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두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논제는 비교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여 인간 본연의 가치와 책임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는 제시문에 따르면 자유이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문제를 공동체 의식과 그 중요성과 연관지어 논하는 것이 두 번째 논제가 요청하는 것이다.

[문제 3]

- 출제의도

학생들은 공동체주의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도표 1>, <도표 2>, <도표 3>을 적절히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및 <도표 4>를 참고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문을 읽고 관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이해력, 이러한 관점을 도표(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응용력 및 객관적 자료(숫자)를 통해 현실을 해석하는 분석력,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시문 해설

문제2]의 제시문 나)는 공동체주의에 대한 설명

<도표 1> ~ <도표 4>는 <커피>의 생산, 소비, 유통과정 및 커피 공정 무역에 대한 각종 통계를 표 혹은 그림으로 표현

- 논제분석(해설)

What	How
① [문제 2]의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도표 1>, <도표 2>, <도표 3>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② <도표 4>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 예시답안:

[문제 1] (30점)

문제1]의 제시문 가)는 차와 관련된 글이며, 나), 다), 라)는 커피와 관련된 글이다. 차와 커피는 모두 기호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나)에는 우선 커피가 지나치게 매혹적인 음료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 그것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위험한 것으로까지 여겨졌다.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면 그것은 만인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특히 예술가들에게는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는 힘이 되기도 하였다. 다)에도 커피는 매혹적인 음료이다. 고종의 예에서 보듯이 한번 맛들이면 그 맛을 잊지 못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근대 문화(고급문화, 서양문물)의 상징이며, 첨단 유행의 상징이었다. 여기에는 과시적 태도도 내포된다. 라)에서 커피는 개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상품이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의 대상만은 아니다. 공적인 윤리를 지향하는 생태지향적 태도, 노동의 보람이라든가, 자연이나 신에 대한 감사와 같은 정신적 가치도 보인다.

나)의 커피처럼, 추사의 태도는 차가 얼마나 매혹적인 음료인가가 드러난다. 초의 차가 그의 창작열을 부추겨 많은 예술작품을 남기는 데 일조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다)에서 커피가 그렇듯이, 차 역시 선진문화(고급문화)의 상징이었다. 차를 마시며 서울의 상류층들은 추사와 동일시하고 과시하는 태도를 지녔을 것이다. 라)와같이, 가)에서도 차의 경제적 의미가 드러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은 소박한 개인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영이나 국제 무역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좋은 차를 만들고자 하는 초의의 차에 대한 열정은 이쏘리의 커피에 대한 열정과 흡사하다.

[문제 2] (30점)

제시문 가]는 사회란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단순한 이름에 불과하다는 사회명론적인 가치관을 지지한다.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일 뿐 그 이상의 초월적인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회 자체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특성과 행동양식이 중요하다. 사회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의 역할이 강조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또한 개개인으로부터 생겨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시문 나]는 사회의 독자적 고유성을 인정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삶을 구속하기도 한다. 사회는 개개인의 종합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사회 구조의 힘이 강조된다. 개인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제시문 가]의 주장은 고도의 산업 사회에서 도덕적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개인적 이기주의의 팽배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는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제시문 나]의 공동체주의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경시하지 않으면서 도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동선과 개인의 책임을 간과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 3] (40점)

문제2]의 제시문 나)는 가족, 이웃,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주의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표 1>을 보면, 커피 생산국은 생산량의 70% 정도를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이 커피 교역의 주도성을 장악하고 있다. 커피시장은 소비국 주도의 힘의 불균형 상태로, 생산국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

<도표 2>은 커피유통과정에서 원두 생산자 및 유통기업이 수익의 6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생산 농가는 5% 정도로 매우 낮다. 즉 수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표 3>은 지난 9년 동안의 커피 교역량, 교역액, 가격 추이를 볼 때,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커피 관련 교역 지표는 세계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커피는 세계 경제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징을 지닌다(커피는 기호품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세계(지구) 공동체 관점에서 생두를 생산하는 저개발국가 농가를 보호하는 공정무역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 커피 무역거래량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현재 전체 교역량의 1%미만에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둘째, 원두생산자 및 유통 기업이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으므로, 이를 농가 및 소비자에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증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회피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전개한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를 단축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커피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전개한다.

셋째, 농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변동에 따라, 특히 선진국의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사전계약재배와 같은 방법을 강구한다.

넷째, 소비자들이 공정커피를 소비할 수 있도록 '착한 소비'와 같은 다양한 소비 문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